

경 및 문화의 질’ 0.208, ‘역할 분담 및 주민 참여’ 0.177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역할 분담 및 주민참여’ 부문에서 ‘지구환경 보전 및 인프라’가 0.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가중치 산정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조화’의 ‘정책 및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강동구에 평가지표를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지표가 강동구청 통계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었으며,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부 문화적인 요소는 정성적인 평가 또는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새롭게 DB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태문화도시 평가지표는 앞으로 법령의 제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논의 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지속성평가 등 기존 도시를 평가하기 위한 생태·문화적 평가틀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신도시 조성 시 생태·문화 지표의 적용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생태적 문화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 도시(생태, 문화, 녹색 도시 등)에 적용되는 평가 지표이고 향후에 만들어질 신도시에는 계획지표로써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신도시들이 생태문화도시를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도시들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생태문화도시 지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환경, 평가지표, FGI, AHP, 융복합적인 조화, 쾌적한 삶, 장소성